



벤치마킹(Benchmarking) 합시다

권익두 | 경영지도사 (엔지비경영컨설팅(주)대표)

벤치마킹은 원래 기업용어이며 1980대 미국기업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우수한 타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경영방식 등의 특성들을 응용하여 이를 통해 자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경쟁력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경영기법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즉, 벤치마킹이란 동종업계 또는 유사업계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자기 기업 또는 자신의 성장·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단 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벤치마킹이란 단순히 성공한 기업이나 사람들을 모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벤치마킹이란 그 추구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간파하여 스스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모델이 이룩한 가시적인 성과 즉, 매출액이나 수익 등 단순 숫자가 아니라 성공요인과 그 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연구하여 자신도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발전과정, 운영기법 및 업무처리방법, 업무 진행과정 등에 대한 연구·분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간파하고 겉만 흉내내는 단순모방을 선호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도사들은 성공한 컨설턴트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있는지, 성공한 컨설팅사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참된 벤치마킹의 의의를 살려야하겠다. ㉞

